

# 은행문턱 높아지고 소비 격차 고착... 힘겨운 서민들

### 지난해 4분기 소득최하위-최상위 월 수입 800만원 차 대출 규제에 2금융권 몰려... 소비 양극화에 백화점·마트도 희비

계층별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다.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도 양극화 현상이 엿보이는가 하면,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둘러싼 고소득·저소득자 간 온도차가 현격하다.

◇극심한 소득 양극화-통계청이 내놓은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유층 소득은 급등하면서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의 작년 4분기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7% 줄어든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년대

비 10.4% 증가한 932만 4300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소득 감소폭은 4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상위 20%의 증가율은 통계 집계 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분배 상황도 가장 악화했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층인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층인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 대출도 온도차-저소득·저신용자들의 경우 제도권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를 주고 비제도권에 의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고소득·고신용자들은 은행권의 낮아진 금리로 혜택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4.73%로 0.41%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강화됐지만 소득·담보가 확실한 차주들의 경우 신용 리스크가 줄어들어 금리가 떨어져 보다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저신용자가 몰리는

저축은행 등은 다르다.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저소득자들에게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비중이 8.7%(2017년 말 기준)로, 대전·충남(7.9%), 인천·경기(7.4%), 부산·경남(7.3%), 대구·경북(6.6%) 등 타 권역 평균 대출비중(7.3%)보다 높은 실정이라는 게 한국은행 광주전남 분석이다.

특히 광역시별로는 광주가 8.2%로 가장 높고 도별로는 전남이 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3곳 이상에서 빚을 낸 경우)이면서 저소득(15단계 소득 등급 중 11~15등급)층이거나 저신용(10단계 중 7~10등급) 대출자인 고위험가구와

고위험개인사업자(다중채무자이며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결국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1금융권의 외면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많고 그나마 2금융권 대출 보유가구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게 업계 분석이다.

자칫 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저소득 대출자들의 부실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도 양극화=소득 격차의 여파는 소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명품과 프리미엄 가전·가구를 판매하는 백화점 매출은 늘어나는 반면, 신선품과 생필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

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품 매출은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11% 신장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롯데백화점 광주점 명품 매출(1~11월)도 전년 동기 대비 8.5% 늘었다.

고가품을 파는 백화점 매출 신장세와 달리 중저가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었다.

이마트가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20.9% 줄었고 롯데쇼핑도 영업이익이 25.5%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자료에서도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광주지역 백화점은 지난해 4분기 전년보다 1.3%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무려 12% 감소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역시 3% 줄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사, 봄은 언제쯤...

### 최저임금·인력 재배치·중국 공장 정상화 등 사안마다 대립

금호타이어가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사간 갈등 양상이 커지는 모양새다.

노조는 최저임금 적용 과정에서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놓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측은 영업오더(주문) 축소를 내세워 '3월 감소 운영 계획'을 노조에 통보, '일방적 운영'이라며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공장 정상화를 둘러싼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주요 정책을 놓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역 경제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회사측이 제시한 '3월 공장운영 계획'과 관련, '감산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인력 재배치를 단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사측은 앞서 주문 몰락 감소로 국내 공장의 경우 가동률을 64% 수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로, 휴·연장근무를 최소화하겠다는 운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조측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담긴 '감산 운영에 따른 여유 인력 재배치' 방안이 부결된 만큼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실화된 중국 공장 문제도 현격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측은 중국공장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400억원을 증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노조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닌, '밑밥진 독에 물붓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라리, 해외 영업망 개선과 설비투자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노조는 더 블스타축에도 중국공장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범위·환산 과정에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송을 검토하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주요 정책마다 노사가 대립하면서 자칫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전, 전국 전기공학 장학생에 장학금 10억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적과 가정형편, 사회공헌활동, 대내외 수상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신사업의 주역이 될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

다.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825명에게 5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6% 늘어난 10억 원의 장학금을 전국 73개 대학교와 10개 대학원의 우수학생 121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한전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학생과 한전 직원 간 멘토링 협약을 맺고 전력산업에 실무 지식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중갑 사장은 "에너지전환·디지털변환

의 대(大)전환기를 대비하는 전기공학도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와 공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됐다. 김중갑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했으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QR code and text: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dok2000@kwangju.co.kr](mailto: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 한국타이어 '3세 경영' 본격화

### 28일 주총... 차남 조현범 사장 등기이사 선임

한국타이어그룹이 세대 교체를 마무리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새로운 등기임원으로 선임한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타이어 그룹의 지주회사로, 조 사장은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조양래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기임원직을 내려놓는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부회장은 임기 3년의 등기임원에 재선임된다.

이같은 안건을 담은 정기주주총회가 통과되면 오너 3세들이 그룹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한국타이어그룹은 또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타이어 렌탈업 신규 진출을 위해 '고무제품 렌탈임대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도 상정해놓은 상태다. 물품을 구매하기보다 필요할 때 마다 빌려쓰는 최근 추세를 감안, 대형 버스나 트럭의 타이어 장착·교체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



조양래 회장, 조현식 부회장, 조현범 사장

지고 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1월 '카라이프 사업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승용차 및 트럭서비스 타이어 판매 뿐 아니라 자동차 토탈 서비스 사업 강화에 나선 바 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도 지난 1월 조직개편을 거쳐며 그룹의 정보기술(IT)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 구조를 혁신하고자 '정보전략실'을 신설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제10대 사장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이 선임됐다.

신임 김인식 사장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거쳐 농촌진흥청장, 경상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농민단체 시절 낙농자조금 정착을 통한 농축산자조금 제도 기반 마련, 한국마사회 및 축산물 가공업의 농림부 환원 등 농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

또 1992년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농어촌

발전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전임 최규성 사장이 태양광 사업 전력과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를 도왔다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부사장인 이종욱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4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2	16	22	38	39	3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011,580,858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83,655,024	42
3	5개 숫자 일치					1,665,961	2,109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3,845
5	3개 숫자 일치					5,000	1,792,259